

# 이주홍의 미완의 장편소설 「야화」 연구

류 종 렬\*

## 차 례

I. 서론	IV. 결론
II. 예비적 고찰	참고문헌
III. 작품 분석	영문초록

## I. 서론

향파 이주홍(1906-1987)은 192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가난과 사랑」이 '선외가작'으로, 그리고 1929년 『여성지우(女性之友)』 12월호에 「결혼 전(結婚前)날」이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하였는데,<sup>1)</sup> 작고하기까지 60여 년을 일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일반적으로 향파가 문단에 데뷔한 작품은 1925년 아동잡지 『신소년(新少年)』에 실린 동화 「뱀새끼의 무도(舞蹈)」와 192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입선작인 단편 소설 「가난과 사람」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뱀새끼의 무도」는 『신소년』지에 1925년이 아닌 1928년 5월호에 실려있는 작품이며, 그 제목도 「배암새끼의 무도」였다[나카무라 오사무(仲村修), 새로 발굴된 『신소년』지, 2002. 5. 22.(이 글은 2002년 5월 22일 부산시 서면 동보서적 4층 문화홀에서 열린 '이주홍 문학의 밤'에서 발표된 유인물이다). 그리고 박태일, 「이주홍의 초기 아동문학과 신소년」, 『현대문학이론연구』 제18집(현대문학이론학회, 2002. 12.)]. 이러한 사실은 향파 자신의 기억상의 오류

관되게 작품활동을 해왔다. 우리 근대 문학사에서 시,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 아동문학, 번역 등 문학의 전 장르에 걸쳐 60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한 작가는 향파 이외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향파는 91편의 소설을 발표하였는데, 장편소설이 「야화(夜花)」(1936-37, 미완), 「화원(花園)」(1937, 미완), 『탈선춘향전(脫線春香傳)』(1951) 등 3편이었고, 중편소설이 「동연(冬燕)」(1938-39), 「가족(家族)」(1946-1948), 「희문(戲文)」(1952), 「어머니」(1977), 「경대승」(1979), 「아버지」(1981) 등 6편이었으며, 나머지는 단편소설이나 콩트였다. 발표시기별로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에 21편, 해방공간과 한국전쟁 전후에 21편, 그리고 6년 정도의 공백기를 거쳐 1965년부터 1984년까지 49편을 발표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학은 아동문학사를 제외하고는 우리 근대 문학사나 소설사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그의 소설에 대한 연구도 소루한 감이 없지 않다.<sup>2)</sup>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나 작품의 연보조차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 원인은 작품의 질적 수준의 문제에 있다기보다는 그가 문학의 전 장르에 걸쳐 작품활동을 하였다는 점, 광복 후 거의 부산에서만 창작활동을 해왔고, 그의 작품세계가 1960-70년대의 비판적 리얼리즘에서 비껴나 있다는 점

---

로 빚어진 잘못된 기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엄밀한 의미에서 향파의 문단 데뷔작이 아니고 향파가 독자로서 이 잡지에 투고한 것이 독자 문예란이 아닌 본문 속에 실리게 되었기에, 자신이 당선작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조선일보』신춘문에 입선작으로 알려진 소설 「가난과 사람」은 정확히 말하자면 '선외가작'이다. 『조선일보』 1월 1일자 신문에 의하면, 1등 당선작은 박계화(朴啓華)의 「나의 어머니」이고, 2등 당선작은 전춘호(田春湖)의 「자기(自己)의 길」이다. 박계화는 백신애, 전춘호는 전영택의 필명이었다. 선외가작으로는 최인준의 「춘보(春保)」, 이주홍의 위의 작품, 이원조의 「탈가(脫家)」, 김성도의 「유혹(誘惑)」, 신진수의 「마파람」 등 5편이었다. 그런데 선외가작은 작품이 신문에 발표되지 않았기에, 향파의 「가난과 사람」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결혼전날」은 향파의 소설로는 실질적인 처녀작이다.

- 2) 향파 소설에 대한 연구성과는 필자의 논문, 「이주홍 소설연구의 현황과 전망」, 『우암어문논집』 10호, (부산외국어대학교, 우암어문학회, 2000. 2), 127-164쪽을 참조할 것. 최근 이주홍 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강남주)에서 펴낸 「이주홍 문학연구」 1·2권(대산, 2000. 11.)과 「이주홍 아동문학상 수상작품집」(대산, 2000. 11.)과 「이주홍의 문학과 인생」(세한, 2001. 5.)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가 집대성되어 있어 향파 문학연구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여겨진다.

등이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또한 소설가로서보다는 오히려 아동문학가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도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 글은 향파의 소설을 한국 근대문학사나 소설사에서 온당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그의 미완의 장편소설 「야화」(1936-1937)를 살펴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작품은 『사해공론』에 1936년 10월호부터 1937년 5월호까지 7회 연재되다가 (1937년 2월호에는 연재 안 함) 중단된 미완의 장편이다. 연재된 분량으로는 200자 원고지 410매 가량된다. 미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그의 초기소설의 작품세계를 잘 드러내는 중요한 작품일 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의 농촌소설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주는 작품이며, 아울러 연재 당시 펴낸 『대지』에 비견되는 등 문단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이기 때문에 연재분만으로도 연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리라 여겨진다.

그런데 「야화」는 황국명과 필자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연구된 바가 전혀 없다. 황국명은 「부산 소설문학사 별건」에서 “농촌 소설이라 칭해진 미완의 장편 소설 야화(『사해공론』 36년 10월부터 연재)에서 떠돌이 머슴 윤서를 중심으로 피폐해진 농촌, 금광 개발로 인한 인심 세태의 변화, 가난으로 인한 아이의 죽음 등을 다루면서도 안주인에 대한 윤서의 성적 욕망을 보인다.”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으며,<sup>3)</sup> 필자는 「이주홍 초기소설의 작품세계 연구」에서 이 작품을 중요시하여 2쪽 정도의 분량으로 설명하고, “「야화」는 미완일지라도, 농촌의 최하층민인 머슴을 통해 당시 농촌의 궁핍상과 부재지주의 착취와 수탈, 금광 개발의 세태 풍속 등을 잘 보여주는 뛰어난 농민소설이라 하겠다.”고 평가하였다.<sup>4)</sup> 그러나 이들 연구는 부산 소설사를 기술하는 가운데, 그리고 향파의 초기소설을 연구하는 가운데 「야화」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한 것이며, 해석상의 오류가 일부 보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황국명, 『존재의 아름다움』(전망, 1996. 11.), 360쪽

4)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제 15호(2001. 12.), 186-188쪽. 필자는 이 논문에서 초기소설의 작품세계를 ‘하층민의 궁핍한 삶과 인간애, 지식인의 전향과 소시민적 삶, 낭만적 사랑과 애육의 파탄, 현실과 자연에 대한 순응’ 등 네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야화」는 ‘하층민의 궁핍한 삶과 인간애’의 항목에서 고찰하였다.

II장에서는 이 작품의 단행본 출판에 얽힌 사연, 작가의 말, 연재 당시의 광고, 문인 사전 등을 당시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작품을 분석하여 농촌소설로서의 의의를 검토하기로 한다.

## II. 예비적 고찰

『야화』는 앞에서 밝힌 것처럼 미완의 장편소설이지만, 단행본으로 출판되려다가 결국 발간되지 못한 작품이었다. 이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살펴보자.

이 작품은 향파가 작성한 작품연보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장편 『야화』, 『사해공론』지에 6, 7회 연재. 잡지 폐간 관계 미완인 채로 있던 것을 해방 후 보완 출판도중 인쇄소에서 원고를 분실했음.<sup>5)</sup>

그러나 작품연보의 '잡지 폐간 관계로'의 기술은 작가의 기억상의 오류인 듯하다. 『사해공론』은 1935년 5월부터 1939년 11월까지 통권 55호가 발간되었는데, 이 작품의 마지막의 7회 연재는 1937년 5월이기 때문에, 연재를 중단한 것은 잡지 폐간 때문이 아니다. 당시 한 잡지에 실린 '문단소식'에 의하면 "이주홍 씨 근일 상경하였는데 씨의 장편소설 『야화』를 출판하고자 준비중이든이 벌써 출판 착수를 했다고."로 기술되어 있다.<sup>6)</sup> 그리고 같은 잡지의 다음 호 뒷 표지에는 『야화』의 출판소식을 알리는 광고가 다음과 같이 실려있다.<sup>7)</sup>

---

5) 이주홍 중편소설선, 『깃발이 가는 곳을 향하여』(태화출판사, 1984. 9.), 364쪽.

6) 『비판』(1938. 8.), 111쪽.

7) 『비판』(1938. 9.). 뒷표지.

이주홍 저, 야화(夜花), 풍림사판

기아와 애욕, 싸움과 죽음, 요마처럼 체험하는 지상의 지옥도회(圖繪) 첫세벽 주립속에 비긴 안주인의 풍만한 육체를 보고 난 뒤로부터 시작되는 현대의 농노라 할 대구스집 며슴 「윤서」의 눈물겨운 일대기

일찍이 회유의 인기로서 십만독서인을 열광시키든 문제의 대작 「야화」는 그 미발표분 속고를 합쳐서 방금 인쇄 중 불원 금추의 출판계를 풍비하러 하고 있다. 작자는 농촌묘사로서 당대유일의 정평이 있는 호적수, 문단상사 「야화」처럼 감격과 흥분을 준 작품은 업슬 뿐 아니라 문단이 총거(總擧) 이 작품을 팔·씩의 「대지」와 대비하여 물의를 이리킨 것은 청말 농촌조선의 저층(底層)을 넘어도 여실 적라라하게 묘파한 가답이다. 「윤서」야 말로 「왕룡」, 「아란」과 더불어 조선에서 뿐이 아니라 세계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실로 역사적인 전형인물인 것이다.

임화 김정혁 엄홍섭 발문·저자자정삽화입(自幀插畵入)·정가 1원.  
발행소 경성장사정 205 풍림사 진체(振替)경성 26036번

이상을 통해 볼 때, 장편 「야화」는 1937년 연재 중단 후 뒷부분을 덧붙여 1년 후인 1938년에 창작집으로 출판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인쇄가 완료되어 출판도중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 출판되지 못했거나 또한 해방 후에도 다시 출판하려 하다가 인쇄소에서 원고가 분실된 듯하다. 출판사가 '풍림사'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잡지가 자신이 직접 창간하고 편집을 맡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sup>8)</sup> 발

8) 『풍림』은 순수 문예잡지로 1936년 12월에 창간되어 1937년 5월 제 6집으로 중단되었다. 편집 겸 발행인은 홍순열(소설가 홍구)이지만, 그와 향파가 같이 발간한 잡지다. 향파는 그의 자서전적인 「청춘은 아름다워라-내 고향 명사들의 인생비망록」, 21회 연재분 「맨발의 편집장」(『국제신문』, 1974. 9. 25.)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전집(조선문학전집-필자)의 편집은 소설 쓰던 홍순열이 맡고 있었는데, 한 사(신소년사-필자)에 있어 같이 문학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 인연이 되어서 1936년에 둘이 창간해 낸 것이 순 문예잡지 「풍림」이었다. 「풍림」은 6집을 내고 폐간되었는데, …” 이것은 또한 『사해공론』 1936년 11월호(제11권 제2호)의 ‘문단(文壇)포스트’에 ‘순문예지 「풍림」간행’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향파의 기술은 타당하다. “순문예지 풍림이라고 제한 이 색적 잡지가 간행된다. 사무소는 서울시내 루하정 73번지에 두고 발행동인으로

문을 쓴 사람이 임화, 김정혁, 엄홍섭인데 임화와 엄홍섭은 널리 아는 바와 같이 카프의 중심 인물이고,<sup>9)</sup> 김정혁(金正革)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나 향파가 「아화」를 연재하던 당시에 『사해공론』의 편집기자였다.<sup>10)</sup>

는 본지에 장편 「아화」를 집필 중이신 향파 이주홍씨와 홍구씨이시며 제1호는 11월초에 나온다고 ….”

- 9) 향파와 임화, 엄홍섭의 관계는 각주 7)의 「청춘은 아름다워라」 22회 연재분 「<풍림>시대」(1974. 9. 26)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역시 군데군데에 부지런히 쓴다고 썼고 「비판」이나 「중앙시보」나 「사해공론」같은 데에 연재도 하고 했지만 밥이 먹힌다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었는데 실상 용돈이라도 만들어 쓰게 된 것은 어쭙찮은 그림이었다. 출판사 단행본 표지 장정을 하는 것과 신문 같은 데 만화를 그리는 것이었다. 그림을 잘 그려서가 아니라 그때쯤만 해도 출판미술에 손대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등장해 있었다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 잡지 표지나 단행본 장정이라면 조선일보사에 적을 두고 있었던 정현웅이 얼마쯤 그려졌지만 문단만화는 큼지막한 표현어를 빌어 써서 나의 독보였다. 내 이전에도 없었지만 내가 그만둔 후에도 아무도 손댄 이가 없었다.

그러나 내용에 따라 그림에 오른 작가 중에 대단히 만족해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면에 비꼬임이나 공격을 받은 작가는 나를 원수같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느 면가는 이태준을 만화에서 꼬집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얼마나 불쾌히 생각했는지 『이 아무라는 사람은 평생동안 「문장」에 글은 다 썼다』하며 그 당시 자기가 내고 있었던 「문장」지로 유세부리던 이야기도 들고 있었다. 최충우돌 마구 박치기를 해대는 식의 평필을 들고 있었던 김문집도 그랬다. 소설 쓰던 엄홍섭이 나를 보고 『김문집이 이주홍이란 자가 어떻게 생긴 사나이인가 한 번 만나 봐야 하겠다』 말을 하고 있었으니 너 조심해라』하기로 예사로만 귀찮려 듣고 말았더니 아닌게 아니라 내가 「신세기」의 편집을 맡고 있을 때인데 학예사에 있던 임화도 내게다 그런 말을 했다. 그는 나를 노상 이박사란 농으로 불렀는데 그 날도 그랬다. 『이박사가 요즘엔 대담해졌어. 그렇지만 김문집이한테 이겨낼 수 있을까』하며 웃었다. 학예사는 신세기사의 옆에 있었고 파인 김동환이 주간하고 최정희 여사가 편집을 맡았던 「삼천리」사는 학예사 옆에 있었던 때다.”

이상을 통해 볼 때, 향파는 임화나 엄홍섭과는 상당히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여겨진다.

- 10) 『사해공론』(1937. 6.), 「편집 후기」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본지를 편집하던 김정혁군도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되고 보니 …”. 「아화」가 1937년 5월까지 연재되었으니, 연재 중단이 김정혁의 퇴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여겨진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김정혁은 『사해공론』 1937년 3월호-4월호에 영화소설 「종야(終夜)」를 발표하였고, 신세기사에서 발행한 잡지 『신세기(新世紀)』 제2호(1939. 9.)의 「예원동정(藝苑動靜)」에 “김정혁씨 조영(朝映) 선전부를 나와 고려영료(高麗映料) 수집 중”이라고 적혀 있고, 영화연극사

다음으로 이 작품에 대한 '작가의 말'과 당시의 평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향파는 작품연재를 시작하면서 제 1회분 앞에 다음과 같이 '작가의 말'을 적고 있다.

인생에 있어서 밤과 낮은 완전히 그 세계가 구분되어 있다. 이것은 곳 한 인간의 밤을 거니는 생활의 그림이다. 밤의 뜻은 향기롭다. 그리하여 낮의 리지(理智)를 배반한 무수한 벌레들은 갈피를 모르게 허공을 허덕인다.

오늘은 동에서 내일은 서에로 일생을 흘러다니는 나그네의 부대(部隊)는 쓸쓸하다.

금년은 이집 내년은 저집 풀잎같이 굴러다니는 마을의 머슴사리도 결코 한이 적은 인생은 앓이다.

내가 그리고저 하는 것은 곳 이 농촌(農村)의 여인부대(旅人部隊)=머슴사리의 한 개 타일이다.

끝으로 정밀하게 고쳐볼 기회없이 어색한 이대로 내놓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sup>11)</sup>

작가는 여기서 농촌의 떠돌이 머슴의 생활을 그린다고 작품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올바른 문장은 아니지만, 밤의 세계에서 이성을 잃고 여인(꽃)을 탐하는 인생을 덧붙이고 있다(이것은 이 작품의 제목 「야화」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제 6회와 제 7회 연재에는 지금까지 '장편소설'이라고만 한 것을 '장편소설/농촌소설'이라고 작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sup>12)</sup>

이처럼 출판 광고문과 작가의 말을 통해서 볼 때, 이 작품은 식민지 농촌의 궁핍한 생활을 떠돌이 머슴이라는 최하층민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농촌 소설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야화」가 연재되는 중에 잡지의 편집기자(김정혁으로 추정.)가 이 작품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자. 이 글들은 비평문은 아니지만 연재 당시의 일반의 평판을 알려주는 것이기에 참고할 만한 것이다.

---

에서 발행한 잡지 『영화연구(映畫演劇)』(발행 겸 편집인 최익연) 제2호(1940. 1.)에 「김유영론(金幽影論)을 썼다. 이로 미루어 문화계 인물인 듯하다. 영화연극사에도 향파가 편집기자로 근무한 적이 있다.

11) 『사해공론』(1936. 10.), 30쪽.

12) 『사해공론』(1937. 4.), 44쪽 및 『사해공론』(1937. 5.), 93쪽.

① 새로 전개되는 이야기의 줄기 이제로부터 가참으로 이 작자의 참다운 의도가 풀리기 시작됩니다. 실로 조선현실의 지하층을 유달은 각도로 채굴되어 가는 이야기에 당신은 만공의 감격에 차질 것입니다.<sup>13)</sup>

② 흥미와 박력의 최고조!!! 『야화』는 각 방면으로 비상한 평판입니다. 작자도, 본편엔 특별한 힘을 경주하여 집필하였답니다. 당신의 친구에게도 널리 선전하여 주십시오.<sup>14)</sup>

③ 소설 『야화』는 요지음 각 방면에 비상한 화제를 덮이고 있다. 팔, 백의 대지 이상의 호평으로”<sup>15)</sup>

④ 주홍의 신장편 「야화」는 물론이거니와 엄홍섭씨의 「구원초(久遠草)」는 우리가 일찍이 소설연재를 피하여 첫번 당하는 열광의 환영을 받는 중이며 ...<sup>16)</sup>

①은 3회 연재분 끝에, ②는 4회 연재분 끝에, ③은 6회 연재분 끝에 쓰여진 일종의 선전 문구에 해당되는 것이고, ④는 2회분이 실린 잡지의 편집 후기에 김정혁이 쓴 글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야화」는 연재 중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문단에 비상한 관심과 적지 않은 화제를 불러 일으켰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작품이 창작집으로 출간되지 않았기에 이후의 구체적인 평가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는 실제 강점기에서 한국전쟁 이후에 이르기까지 「야화」의 작가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발간된 잡지 『신세기(新世紀)』 제2호에 실려 있는 최상암(崔尙巖)의 「문단인물론(文壇人物論)」에 이주홍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문자 그대로 만능재(萬能才)이어서 시에 소설에 동요에 동화에 삽화 표지 편집까지 겹쳐 남이 흉내 못 낼 재간을 피우는데 더욱이 문단만화와 정치만화는 실로 당당한 것이요 득의의 농촌을 그린 그의 최근작 『야화』는 이 땅 어느 작가에도 지지 않을 확신이 높은 수준을 지은 작품이었다. 인간적으로는 다정다한 펍 재미있는 분이다.<sup>17)</sup>

13) 『사해공론』(1936. 12.), 101쪽.

14) 『사해공론』(1937. 1.), 100쪽.

15) 『사해공론』(1937. 4.), 53쪽.

16) 『사해공론』(1936. 11.), 276쪽.

17) 『신세기(新世紀)』(1939. 9), 44-45쪽. 『신세기』(편집 겸 발행인 곽행서)는 향파가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발간된 잡지 『문화세계(文化世界)』 3호에 ‘특별 부록’으로 실려 있는 「현재 한국문학인 총람」에도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소설가) 1906년생, 경남 합천 출신. 전주 부산시 대연동. 학교를 나온 뒤 잡지사 기자 등의 직을 거쳐 현재 수산대학에 출강. 씨는 소설가로만 저명할 뿐 아니라 극작가 화가로도 대가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장정미술에는 독보적인 존재다. 많은 단편을 발표하였고 장편으로 『야화』가 있으며 최근에 발간된 『탈선춘향전』은 원작 이상의 풍속을 띠고 있다 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sup>18)</sup>

이상을 통해 볼 때, 「야화」는 미완의 장편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연재 당시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한국전쟁 이후까지 이주홍의 대표작으로 널리 알려졌다.

### Ⅲ. 작품 분석

「야화」의 스토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철의 집에서의 머슴살이가 너무 지독해, 이제부터는 죽어도 머슴살이를 안 하겠다고 다짐했던 윤서였지만, 어쩔 수 없이 박치삼의 집에서 올해도 그 머슴살이를 다시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새벽, 잠자는 안주인의 나신을 보고는 욕망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그녀를 범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다 이상철과 그녀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자신의 희망이 무너진 것을 고민하며 이들에게 복수하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후 가뭄이 계속되어 머슴살이의 어려움이 묘사되고, 그 와중에 약을 쓰지 못해 자식이 죽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술과 계집에 빠져 지내다가, 정신을 차리게 된다. 일본에 간 용호가 마을로 돌아오자, 윤서는 자기 딸을 그와 결혼시키려 한다.

플롯의 전개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연재분의 스토리를 횡수별로 요약하면

편집을 맡았던 잡지이다.

18) 『문화세계(文化世界)』(희망사, 1953. 9), 215쪽, 경남지역 문학회, 『경인전쟁과 한국의 지역문학』(『지역문학연구』 6집, 2000. 10.), 277쪽.

다음과 같다.

제1회; 안주인과 이상철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윤서가 자신의 희망이 무너진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괴로워한다.(현재) 이제부터는 다시 머슴살이를 하지 않겠다는 윤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머슴살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꿈은 집 한 칸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바깥주인은 금광에 미쳐 집에 붙어 있는 일이 드물어서 자연히 안주인과 가깝게 지내게 되고, 그녀에게 가족적인 애정을 느꼈다.

제2회; 유두날 새벽 물을 길러 가다가 방장 속에 자고 있는 그녀의 발가벗은 육체를 보고는, 이성으로서의 욕망을 가지게 되고, 밤에 몇 번이나 그 방에 뛰어들어가고자 하나 한 번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하루는 안주인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밤에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여 기대를 하지만, 고리대금하는 그의 아우에게 돈을 꾸어달라는 말을 듣고 크게 실망했다.

제3회; 그가 아우에게 돈을 빌어주고, 이를 기회로 그녀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결국은 실패했다. 다음날 밤에 가다가 안주인과 이상철의 불륜 현장을 발견한다. 이상철은 그녀의 남편과 친한 사이로 집안 관리도 해주고 자주 놀러도 오는 지주계층의 인물이다. 윤서는 작년에 그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다.

제4회; 이상철은 일하다 다친 윤서에게 일 안 한다고 핀잔만 하였다. 그리고 머슴에게까지 비싼 장리를 받고, 협박까지 하였다. (과거) 윤서는 그들의 불륜관계를 모른 채 하고, 이들에게 복수하려고 생각한다. 상철이 떨어뜨린 물건과 돈을 훔쳐 감추어 놓고 고민을 한다.

제5회; 가뭄이 계속되자, 눈에 물대기로 마을사람과 싸우지만, 저녁에 화해한다. 물대기가 바쁜 가운데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이 와서 집으로 왔다갔다하나 돈이 없어 약도 쓰지 못한다. 송약국에 외상으로 약을 지으러 간다.

제6회; 주인은 외상이라고 약을 주지 않는다. 박치삼이 일하지 않는다고 나무란다. 이상철에게 돈을 빌어 약을 지어와 아이에게 먹였으나 결국 죽는다. 아이를 묻고 오다, 상철이 금광 채굴을 하려고 사람을 데려온 것을 알게 된다. 다시 상철에게 돈을 빌어 술집에 다니면서 안주인인 밀밭골네와 친하게 지낸다. 장날 집으로 돌아오다 그녀를 만나 유혹하려 한다.

제7회; 순사를 만나 고초를 당하다가 그녀의 도움으로 모면한다. 윤서는 계집에 정신이 빠져 일년동안을 허비한 자신을 미워한다. 추석이 다가와 아이들 생각이 났다. 일본에 간 용호가 왔다. 그에게는 약간의 빛이 있는데, 그가 자기 딸과 혼인을 청한다. 용호덕을 보아 일본으로 따라가면 집안 형편이 나아질까 생각하여 선금 30원을 받고 결혼을 준비한다. 용호와 술을 마시면서 현실을 비판한다.

이상을 통해 본다면, 제1회의 서두에 윤서가 이상철과 안주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난 뒤의 현재의 심정이 서술되고, 이어 그의 과거와 현재의 머슴살이 행적이 다소 길게 서술되고, 제4회에서 다시 현재의 머슴살이 생활로 이어지는 순차적 플롯이, 주인공 윤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시공간적 배경은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1930년대의 경상도 농촌인 듯하다.

먼저, 주인공 윤서를 중심으로 머슴살이의 실상과 농촌 현실을 살펴보자.

이 작품의 주인공은 윤서라는 떠돌이 머슴이다. 머슴은 중세 봉건사회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 신분으로, 엄밀하게는 농민이라 할 수도 없는 농민이다. 더구나 떠돌이 머슴이란 한 집에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최하층, 「야화」의 선전문구처럼 '조선현실의 지하층'에 속하는 계층이다. 그의 아버지 때는 산지기와 소작농으로 비교적 괜찮게 살던 집안이었으나, 그가 죽자 자신은 머슴살이, 동생 윤희이는 일본 노동 이민, 어머니는 방물장수 등으로 겨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머슴살이는 농촌에서 소작인도 될 수 없는 농민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머슴살이의 고통에 대해 제1회 연재분에서 작가는 전지적 시점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한솥의 밥을 먹고 한 논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그는 주인과 같이 한자리에서 밥을 먹거나 해볼 수는 없었다. 부엌간이나 첨아 밑에서 다듬이돌이나 빗자루를 깔고 앉아서 반찬 한가지라도 꼭 주인과 달른 것이었다.

눈알을 찢러가면서 허리가 부러질듯이 논이나 매고 도라울 때의 공상은 별달리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김이 뭉게뭉게 나는 밥 한 그릇 맛있게 딱거 먹고 가슴이 느러지도록 담배 한대 시원히 빨아 마실 그것이 그에게는 그때그때의 짧은 시간을 메워나갈 큰 위안이었다. 그러나 집에 도라와서 쌀 한알이라도 석겨있어 보이고 콩지나마 고등어 토막이라도 놓인 주인의 밥상과 팽이같이 빠죽 치켜올린 굳어빠진 보리밥 한덩이에 냉수 한 그릇 뜻나를 한 접시에다 생된장 한 수깁 발너 무친 한산한 자기 밥상을 건주어 볼 때엔 정말 목구멍이 맥혀서 공연한 우래만 차올너 오고 별렀든 밥맛은 조수물에 시쳐가는 모래알같이 어데론지 다러나 버렸다. (중략)

자식들이 보고 싶고 안해가 그리워도 좀처럼 마음나는대로 집에를 가지는 못하였다.

밤으로도 논물을 보아야하고 소외양간도 보아야되고 졸지에 비가 올 때에도 혼자 일어나서 설거지를 해야되나 만일 집으로 갔다가는 원집안사람의 눈총과 원성을 짊어지게된다. 기어코 가보고 싶으면 마치 글읽기 싫은 서당 아이들이 점장에게 거짓 청탈을 하고서 나가 놀듯이 무슨 청탈이라도 대이

지 안으면 순조롭게 못되었다.

밤낮을 두고도 단 십분 이십분이나마 자기 차지의 시간이라고는 없으니 이래도 사는 것이 좋다 할까 다 제각기 살라고 타고난 세상에 대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윤서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이 몹시도 쓸쓸하였다.<sup>19)</sup>

주인공 윤서는 이러한 머슴살이가 너무 힘들어 갈비장수도 하고, 일본으로 가서 노동을 하려고도 했으나 결국에는 '침 뺄고 간 우물에 다시 돌아와 물 먹는다'는 격으로 맹세까지 한 머슴사리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주인/머슴의 대립적인 계급의식이 반영되어 있는데, 관념적인 내용이 아니고 실생활의 직접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요약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고통과 머슴살이의 어려움이 꺾진성을 지니게 된다.<sup>20)</sup>

이러한 머슴살이의 고통은 윤서가 작년 이상철의 집에서 머슴살이할 때의 일화와, 올해 박치준의 집에서 머슴을 살면서 가뭍으로 인하여 눈에 물대는 노역과 그 와중에 일어나는 자식의 죽음 속에서 더욱 구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앞의 일화는 한여름에 밤늦도록 삼을 삶다가 다리에 화상을 입었으나, 옹게 치료도 하지 못한 채 한 달 동안 누워지내게 되었을 때, 상철에게 농사철에 머슴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편잔 섞인 욕을 듣는 내용이다.<sup>21)</sup> 머슴이 주인 집의 일을 하다가 다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머슴살이의 현실이다.

이것은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뒤의 것은 제5회 연재분과 제6회 연재분의 절반에 걸쳐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머슴살이의 어려움을 통

19) 『사해공론』(1936. 10.), 33-34쪽.

20) 이주홍은 일제강점기에 좌파 아동문학가로 평가되고 있으며(이재철, 『아동문학개론』, 서문당, 1984, 58쪽), 실제 경향소설에 속하는 것으로 「치질과 이혼」(『여성지우』, 1930. 4.), 「그 놈을 그대로 두었나?」(『여성지우』, 1930. 10.) 등이 있다. 그리고 해방 후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동맹 중앙집행위원이 되고, 이어 조선문학가 동맹 아동문학부의 위원을 지냈다. 구체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는 1929년과 1930년 사이에 카프에 가담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작품을 연재하던 당시는 카프가 해산되고 일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불가능했던 시기였지만, 향파에게는 어느 정도의 주인/머슴의 대립적 계급의식은 남아 있었다.

21) 『사해공론』(1936.12.), 101쪽과 『사해공론』(1937.1.) 92쪽.

해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서술되어 온 농촌 현실의 실상이 가뭄으로 인해 그 구체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① 길바닥은 확근확근 맨발로 못 거러 다닐만큼 날은 더웠다.

콩잎은 보야케 트러지고 벼넝은 가락같이 들들 말였다. 채전에 있는 열무나 상추는 데운물에 삶어 논듯이 시들었다. 무더운 풀냄새 흙냄새가 월컹월컹 숨통을 선차고 드러왔다.

논두렁을 타고 다니는 일꾼들은 불난집같이 분잡하게 날뛰었다.<sup>22)</sup>

② 「이놈아 경칠 놈의 자식아. 물이 알로 내려가지 올라가는 법이 어데 있더냐. 네 눈에만 물이 넘도록 처실어 놓고 내 눈은 이렇게 말여야 되나 그래?」

「이 망할놈의 자식아. 놀깁이 있거든 드러다 보렴아. 어데 물이 넘노. 물이 넘어?」

「이 때려죽일 자식아. 내 눈은 이렇게 밧사 말여 놓고도 눈구녕에 안 보이나? 누깁이 썩었나?」

두말직이 삼논에서는 그 밧헤 눈 입자 배서방하고 싸흠이 붓혔다. 서로 물꼬를 도두고 파헤치고 곡괭이 노름이 버러졌다.

「이놈의 자식. 한번 해 볼레?」

「오냐 야야 한번 해보자. 내가 네놈을 겁낼 줄 아나?」

배서방은 광이자루로 윤서의 엮구리를 지어 질녘다. 윤서는 가졌든 수군포를 내던지고 웃통을 버섯다.

「입다 이놈아 니가 버서노면 사람 죽일것가?」

「뽀시 엇저고 있재?」

윤서는 배서방의 멸살을 흠쳐 취고 다리를 거두어 논구역에 때려 꼬졌다.

「이놈이 사람친다-」

「아야 아야- 사람 살이라-」

미친 삼살개같이 엉겨붙은 두 사람은 논바닥을 미련한 탱크같이 함부로 데굴데굴 굴굴렀다.

「아야 아야- 사람 살이라-」

어느 사람이 불살을 당기는지 넘적다리를 물리는지 죽는 시늉을 하였다.

「이 사람아. 이거 안놓을네. 이거 안놓을래?」

어느 사이엔지 네댓 사람의 논매든 일꾼들이 모여와 말였다.<sup>23)</sup>

①은 가뭄 현장의 묘사이고, ②는 논에 몰대는 일로 윤서와 배서방이 싸우는

22) 『사해공론』(1937. 3.), 103쪽.

23) 『사해공론』(1937. 3.), 103-104쪽.

장면 묘사이다. 가뭄으로 고통을 겪은 농촌 현실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러한 묘사야말로 이 작품이 농민의 삶에 기반을 둔 농촌소설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윤서는 밤에도 다른 일꾼을 데리고 눈에 물을 대야만 했다. 이 와중에 젓먹이 아이가 학질로 죽게 되었다고 집에서 연락이 온다. 그러나 그는 집에 가서 변변히 간호도 못하고, 돈이 없어 약도 먹이지 못하는데, 오히려 안주인은 짜증을 낸다.

윤서는 어서 나어라는 듯이 젓먹이의 볼에 볼을 문질러주는 아츨 일즉 주인집으로 내려왔다.

이슬을 차고 온 모기 물린 자리는 칼로 베인 듯이 앞으로 가려웠다.

눈을 그렇게 맡여놓고 있절려고 그렇게 쏘다니나 하는 듯이 약간 짜증난 얼굴로 안주인은 물걱정을 하였다.

무슨 팔자로 이렇게 걱정도 많고 맞은 일도 많을까 하고 한참 동안 이저 버렸던 머슴사리 원한이 다시 용소슴쳐 올랐다.<sup>24)</sup>

그런데도 돈이 없어 온갖 조약을 써 보기도 하고, 민간신앙에 의지하기도 하였으나 아이가 회복될 기미가 없자 외상약을 지으러 가지만, 거절당하고 이상 칠에게 새겨나락을 잡혀 돈을 빌어 약을 짓지만 너무 늦어 결국은 아이가 죽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너무나 핍진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자식의 죽음으로 술과 계집에 빠져 일 년여를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자신을 반성하고 가족들을 걱정한다. 그때 일본에 간 마을 청년 용호가 와서 큰 딸 금순과 혼인하겠다고 하자 선금 30원을 받고 결혼을 준비한다. 이것은 향파의 소설 「산가」(1936)나 「화방도」(1937)에서 어린 딸을 돈 받고 시집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신매매의 매춘과 다름없다.<sup>25)</sup> 이는 일종의 후진국 인신매매에 속하는 것으로 영아나 나이 어린 처녀가 보호자나 본인의 잠정적 동의와 강제적 조건 아래 매매되는 경우다.<sup>26)</sup> 용호에게 약간의 빚도 있는 데다가, 그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가서 노

24) 『사해공론』(1937. 3), 107쪽.

25) 「산가」와 「화방도」에 대해서는 필자의 앞의 논문 (2001), 185-186쪽과 188-189쪽 참조.

26) 선진국형 인신매매는 성산업의 초과 수요를 메우려는 폭력집단과 유흥업주의 강제와 유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신매매를 말한다. 김홍석, 「폭로된 성과 은폐된 제도」, 김정자 외 공저, 『한국 현대문학의 성과 매춘 연구』, (태학사, 1996),

동을 하게 되면 집안 형편이 나아질 것 같아 15살밖에 안된 딸을 팔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농촌 현실의 궁핍상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로써 그의 가족 중에 어머니가 눈이 멀었고, 어린 아이가 죽었고, 장차 딸까지 일본으로 떠나게 되는 등 가족 해체와 붕괴가 가속화된다.<sup>27)</sup>

이런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집 한 칸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에게 집이 있기는 하지만, 넓지도 않은 단칸방에 모친, 아내, 딸 둘, 아들 둘의 일곱 식구가 같이 자기 때문에 그는 방 한 칸이라도 더 있는 집을 마련하고 싶어했다. 집에 대한 그의 집착은 작품 곳곳에 서술되어 있지만, 특히 제1회와 제2회의 연재분에 많이 나타난다.

① 그의 집은 이곳 주인집에서 한오마정 가량되는 복산 밑의 큰 마을 바로 뒤편쪽에 있었다.

여름으로는 마을 앞 외따로 앉은 주막집의 정자나무 때문에 잘 보이지 않으나 겨울에 보면 조그마케 언덕으로 따로 떠러져 있는 것이 맞이 어느집 거름간이나 상여곳집같이 보였다.

딱나무 심근 발두덕길을 갈지자로 몇구비 올라가서 호박넝쿨 올닌 발두덕과 몸체보다 커보이는 수수깡 뒤간이 바로 사름문으로 되어있고 비죽비죽 내민 큰바위에 제비집같이 붙어있는 것이 바로 그의 집이었다.

울룩불룩한 돌담벽 끄시름이 주렁주렁 매달린 천장 밑감바구니같이 덩성덩성 저런 대살문에 궁계궁계 회연봉지로 매운 빛남은 모기장 그것이 마을에서 윤서의 집을 특증하는 것이다.<sup>28)</sup>

② 그리 넓지도 못한 단칸방에 윤서의 모친, 안해, 큰딸 금순이, 학교 다니는 태성이, 다음 딸 분이, 젓먹이 아들 학이 이렇게 쳐어두립같이 끼여 누으면 창편 벽쪽으로 눕는 사람은 누구던지 이튼날 아침에는 살과 옷에 벽화를 무치고 일어난다.

#### 326쪽 참조.

27) 이뿐 아니라 농촌의 붕괴로 인한 가족간의 혈연의식의 붕괴 현상이 동생 윤홍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윤서가 자신의 자식이 죽어갈 때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돈 한 푼 변동할 수 없을 만큼 윤홍은 '고초가루'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수전노에 가까운 인물이다. 그가 일본에 가서 공장 노동을 하고 돌아와 사방공사 감독, 면서기 등을 하다가 장가를 잘 들어 처가 덕까지 보게 되어 지금은 부자로 살고 있다. 그런 그는 늙은 모친을 내치고 오직 자기 아내와 장모만을 위하는 부정적 인물로서, 가족 관계의 붕괴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28) 『사해공론』(1936, 10), 32-33쪽.

그차에 유서라도 간혹 집에 와서 자게 된다면 모친은 새우같이 굵으러져서 구들막으로 밀려나려 가야하고 입김에 취한 젓먹이는 몇 차례나 전부레기를 친다.<sup>29)</sup>

③ 그나마 육체가 그리울 때마다 만저볼 수나 있었던가 모친이 실명을 하고 이웃 출입을 못하고 난 뒤로는 안해를 가가히 한다는 것이 남의 계집 만나기보다 더 힘이 들었다. 집이여 밤이여 주택이란 인간생활에 있어서 그 처럼 실제의 영향을 갖는 물건인가 한테 나와서 인간은 생활할 수 없는가 윤서는 공연히 그럴 생각도 해 보았다.

주인집의 눈치를 마저가면서까지 모처럼 집에라도 가 놓으면 당초의 기대는 어대론지 날려가 버리고 만다.

태성이란 놈의 들충이같은 꼴과 남의 집 자식들의 똑똑한 것을 견주어 볼때엔 공연히 견잡을 수 없는 짜증만 났다. 그차에 안해라고 하는 것이래야 반갑게 우스며 맞아주는커녕 볼 때마다 무엇이 없다는 등 무엇이 떠러졌다는 등 성가신 트집만 내었다. 머리 큰 여식이 옆에 있자니 마음놓고 안해의 곁에 눕기조차 조심스러웠다.

모친과 자식들의 넉넉히 잠든 숨소리를 기다려가면서 안해의 다리 우에 한 쪽 발을 걸쳐 본다.

안해는 그럴 때마다 자기도 역시 남편이 그리웠다는 듯이 가만이 있었다.

윤서는 불길이 타오르는 정욕을 누를 수 없이 안해의 머리를 들어 자기의 팔우에 얻는다. 그러면 보스락하는 소리가 옆에 들릴까 봐 겁을 내는지 안해는 도라눕는채 곧 머리를 빼어간다.<sup>30)</sup>

①은 윤서의 집의 묘사인데, ‘거름간이나 상여곳집’같이 보일 정도로 퇴락한 집이다. ②는 단칸방에서 가족들이 모두 잠잘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③은 자신이 집에 가서 인간적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만, 이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필진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래서 그는 늙고 눈 먼 모친을 단 하루라도 편하게 거처하게 해 주고, 아내와도 딴 방에서 거처하고 싶은 것이었다. 현재의 그는 자식이 보고 싶고 아내와 부부관계도 가지고 싶어도 자기 집에 가지 못하고 이 집 저 집의 모충방에 기거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윤서의 희망은 ‘공상’만으로 끝나는 것이기에 더욱 비극적이다.

이러한 윤서의 집에 대한 욕망을 땅이나 흙에 집착하는 농민의 일반적인 정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머슴살

29) 『사해공론』(1936, 10), 33쪽.

30) 『사해공론』(1936, 11), 85쪽.



이는 농민이 농촌을 떠나지 않는 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윤서 역시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소작인의 꿈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① 이제는 머슴사리를 그만두고 날뎠을 팔드라도 휘- 객지 바람이라도 쏘여보고 싶었다. 그러나 거이 뺨처럼하고 난 남어지에 그는 다시 작년에도 머슴사리를 하지않으면 안되었지 않은가

대구 김부자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역시 이 마을에 사는 이상철이는 봄에 들새경을 받아먹은 큰머슴이 도망갔었음으로 일은 바빠지고 머슴은 없고 초조하던 판에 윤서를 잡아다렸다. 망설이든 윤서도 병작을 힘써주마는 바람에 다시 원수의 일년을 상철의 집에서 보냈다.<sup>31)</sup>

② 그리고 차차로 이집을 통해서 읍내 박치삼에게 병작도 얻어 부치고 이집과도 남갈잔케 지냄으로서 서로서로 형편이 피어나가도록 하리라 생각하였다.<sup>32)</sup>

①은 이상철의 집에서 다시 머슴살이를 하게 된 사연을 드러내는 부분이며, ②는 박치준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상철의 집에서는 다시는 머슴살이를 하지 않겠다고 그가 다시 일 년을 그의 집에서 보낸 것은 바로 '병작'을 힘써 주겠다고 말 때문이었다. 물론 그에게 병작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박치준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주인에게 신임을 받아 '병작'을 얻고자 한다. 병작은 땅 임자와 소작인이 소출을 똑같이 나눠 가지는 제도로서, 추수 후에 1년의 새경을 받는 머슴살이와는 다르다. 그만큼 그 자신도 소작농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처지였다.

다음으로, 머슴인 윤서와 안주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이것은 II장에서 살펴본 '작가의 말'에서 말해진 것처럼, 밤의 세계는 낮에 볼 수 있는 인간의 '이지(理智)'를 배반한 본능과 애욕의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서는 박치준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이전의 머슴살이와는 달리 마음은 편하였다. 박치준은 “농사에 따른 살림사리는 전부 머슴에게만 맡겨놓고 언제든지 집에 붙어 있지 않았”고, “집에 붙어 잇는 동안에라도 들에 나가서 모판이 어떻게 되었는지 별로히 구경하는 법이 없”는 인물이었다. 그런데다 안

31) 『사해공론』(1936. 10), 34쪽.

32) 『사해공론』(1936. 10), 42쪽.

주인 역시 “심성이 굵고 서들서들 우시게도 잘 하”였고, 윤서를 같은 박씨라고 ‘아재’라고 불렀다. 윤서 역시 그를 ‘아즈마씨’라고 부르며 형수나 제수를 대하는 듯한 일종의 가족적 애착을 느끼며 머슴살이를 한다. 그런데 윤서가 유두날 새벽 물을 길러 가다가 가려지지 않는 방장 안에 자고 있는 여주인의 발가벗은 모습을 보고는 밤만 되면 그 방에 뛰어들어가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건은 시작된다. 며칠 밤을 그녀의 육체에 대해 생각하며 그의 방에 들어가는 공상도 하고, 실제로 한밤에 방에까지 들어가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러한 내용이 제2회와 제3회에 걸쳐 길게 서술되어 있다. 이것은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는 동물적 본능과 욕망의 추악성이 인간성을 황폐화시키기까지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여주인에 대한 애정갈등이 윤서의 머슴살이의 고통이나 지주와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보다 더 강조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아내와 부부관계를 가질 공간조차 없는 윤서에게 원초적 본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듯하고, 이 부분은 장편소설의 앞부분이라는 점과 연재소설로서 독자를 염두에 둔 통속적 구성으로 보여진다.

이 점은 작품 연재시에도 제3회 연재분의 끝에 기자가 “새로 전개되는 이야기의 줄기 이제로부터 가참으로 이 작가의 참다운 구도가 풀리기 시작됩니다. 실로 조선현실의 지하층을 유달은 각도로 채굴되어 가는 이 이야기에 당신은 만공의 감격에 차질 것입니다.”라고 말한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작가의 주된 의도가 인간 내면의 추악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선 현실의 지하층을 탐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여주인과 상철의 불륜현장을 목격하고는 여주인의 상냥한 행동이 자신을 속이고자 한 수작임을 깨닫고, 자신의 몽상적이고 무모한 행동을 반성하고 복수할 것을 결심하는 데서도 확인된다.

지금까지 윤서의 생각이나 행동은 머슴살이의 고통 속에서 빈부의 격차에 대한 불만이나 머슴으로서 주인에 대한 약간의 계급의식만을 보이면서 소작이나 집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제7회의 마지막 장면에서 사위될 율호와 술을 마시면서 윤서가 하는 말은 당대의 농촌 현실의 문제점을 지나라하게 드러내기에 주목된다.

“그래 이 사람 자네는 너른 바닥에 잇는 사람이니 드른 귀도 있을 터이고 그래 지세상 형편이 어찌 도라가는 째인가.”

그는 우리 용호는 모를 것이 없으리듯이 원갓 것을 무렸다.

“글시오, 아모데나 사람사는데는 매일반이지요.”

용호는 일본 내지에 잇는 조선노동자들 이약이 노가다 부랑군이야기 풍장이야기 혹은 수십명씩 검속을 당한 조합운동자들 이야기 질서없이 짓그렸다.

“그래 이 사람 참 자네말 맞드나. 무슨 주의니 노시아가 었던다해도 그거 다 소용잇는가. 그놈들 밤낮 큰소리만 탕탕해도 잡혀 드러가는 군은 제들뿐이 아닌가. 으허허. 그래보게 또 내말 좀 듣게!”

윤서는 자기의 의견과 상대자의 의견이 합치되는 것이 질첩다는 뜻이 ○기워 못견되다가 이번 소리는 크게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 목소리를 가늘게 내추면서 오리가치 내미렸다.

“년겨올에 우리 동니 약국 자근 아들놈캉(자근 아들놈과) 문실이 자식놈캉도 안잡혀갔는가 관청에서 보지말나는 책보다가 그리뒀다네. 글세 우리 동니에도 야학이 있어야 된다고 ○○이네 사랑방을 비운다 기름값을 모은다 하더니 글 배운지 사흘만에 금지를 당했네 그러 우리 백성이 법로 그러쿠먼 되는가 글세 이사람아 그 놈들 하는 말은 네것 내것 엷다고 하더니만 올 여름에 것먹이란 놈 압홀 때 외상약 한첩을 안주데 그러. 그러니 그거 다 소용업는 소리 아닌가. 으호호호.” 그는 자라목가치 목을 움으려 드리면서 그들의 허위성을 발견한 것이 몹시도 상쾌하다는 뜻이 작고 우셨다. 그리고는 지난 해 독서회 혐의사건으로 검거되여간 마을 몇사람들의 경과내력을 손해술을 내여가며서 이약을 하였다.

“글세 이사람아. 네것 내것 엷다는 사람 애비가 외상약 한첩을 안주데 그러 으호호호호호” 그는 그것이 몹시도 우습다는 뜻이 작구 우셨다.<sup>33)</sup>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농촌계몽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의 편린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을 다녀온 용호의 입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황이 암시적으로 드러나고, 윤서가 비록 술의 힘을 빌어서지만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윤서는 주로 당시의 사회주의 운동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주의나 러시아가 있다고 해도 잡혀가는 자들은 그것들을 믿는 자들뿐이니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였으며, 또 ‘네 것 내 것 엷다’는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자기의 아이가 아플 때 외상약 한 첩 안 준다고 말한다. 이러한 발언을 통해 윤서의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이해의 차원이 미숙하다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33) 『사해공론』(1937. 5), 99-100쪽.

머슴인 윤서의 진솔한 고백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적 성격을 띠고 있다. 머슴의 관점에서 이러한 운동이나 이념이 실제 농촌의 궁핍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관념적 담론임을 분명하게 지적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민족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의 진정한 목표가 농촌 하층민의 궁핍한 삶을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농촌에서의 머슴과 지주 또는 부채지주의 일상사가 잘 드러나 있다. 머슴의 일상사는 지금까지 윤서를 통해 살펴보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지주 또는 부채지주의 일상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지주 또는 부채지주에 해당되는 인물로 윤서가 올해 새로 머슴살이하러 간 집의 주인인 박치준과 작년까지 그가 머슴살이하던 집주인인 이상철이다. 박치준은 읍내에 제일 큰 포목상을 하는 박치삼의 형인데 어릴 때부터 오입장으로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다니다가 요즘은 대구에서 금광일을 하는 인물이다. 그에게 박치삼은 이 마을에 토지와 집을 사주고 농사를 짓게 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금광에 빠져 집에 있지 않는다. 그는 일확천금을 꿈꾸던 당시 금광 풍속도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인물이며, 아울러 일종의 부채지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아내인 안주인은 집에서 자신의 치장이나 신경 쓰고, 농촌 생활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 인물이며, 또한 남편 모르게 이상철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상철은 마을의 어른으로 행세하며, 돈놀이도 하는 악덕 지주로 묘사되어 있다. 그는, 윤서가 머슴살이를 일하다가 화상을 입어 쉬고 있을 때도 머슴이 일 안 한다고 편잔을 주고, 약값으로 빌려간 돈을 장리를 쳐서 받고, 또 여름에 도적술을 몇 짐 한 것을 군청에 밀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술까지 얻어먹은 인물이다. 또 윤서가 일본 도항권을 얻기 위해 부탁을 할 때도 일은 성사시키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챙겼으며, 심지어는 윤서가 마을에서 발견한 금줄을 미리 알아채어 윤서 몰래 채굴 허가까지 내려고 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박치준이 모르게 박치준의 처와 불륜을 저지르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박치준과 이상철은 당시의 농촌에서 수탈과 착취를 일삼은 부정적 인물의 전형이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우리나라 전래의 민간 풍속과 근대자본주의의 유입으로

인해 변모된 농촌의 세태 풍속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전래의 민간 풍속으로는 증묘(蒸猫)행위, 민간요법, 점치는 풍속 등이 있다.

① 그날 상철의 집에서는 양밥을 하는 판이었다.

상철의 안해는 떡시루 우에다가 고양이를 묶어놓고 불을 때었다.

뜨거운 김에 고양이가 몸부림을 치다가 죽게되면 죽는 그 순간과 동시에 돈흠쳐간 놈은 사지가 트러지고 눈알이 비트러진다는 것이다.

곳곳에 돈흠쳐간 놈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최후로 이러한 양밥을 하는 것이었다.

「새가(혀가) 만발이나 빠져죽을 놈!」

「씩어서 문둥이를 패죽놈」

「그 돈 먹고 그 놈 잘살 줄 아는 가베」

상철이 안해는 ○○앞에 안저서 부시깁이로 땅을 쿡쿡지르면서 발언을 하였다.

「명천 하늘님네 그저 영험이 있으사 고양이가 죽그던 그저 금방 돈가지간 놈이 문둥이가 되고 곰살을 마저 죽게합시사!」

그는 ○○○○○○ 언달너 명천하늘님네를 외었다.<sup>34)</sup>

② 「생가재집을 내여 가지고 그 물을 입에 너호면 조타는데 가재를 누가 잡어올까.」

이튿날 아츰 윤서모친은 윤서를 두고 걱정을 하였다.

「그러치 않은 나는 물푸기 때문으로 갈 여가가 있어야지. 태성이나 금순이를 보내어보지. 누구말 드르니까 돼지대가리 뺨다구를 붙에 살너 가지고 들기름에 개여서 먹이면 그게 당재라고 하는데 오늘 그계나 한번 해보지요.」

「그러치 않은 돼지 잡은 사람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구하나.」

요새 동네에 누가 돼지를 잡은 집은 없었나하는 듯이 윤서모친은 명하게 고개를 들고 생각하였다.<sup>35)</sup>

③ 그러나 어린애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도리어 호롱에 기름줄 듯 괴운은 더욱 없어지고 원갓 조약을 다해 보였스나 하나도 호험을 보이지는 않았다.

윤서모친은 어두운 눈으로 십리길을 가서 점을 해가지고 왔다 철이 ○○ 주서다놓은 석유캐쩍이 탈이났다 하기로 목신을 ○○○○○○ 길스가에 내

34) 『사해공론』(1937. 1.), 99-100쪽.

35) 『사해공론』(1937. 3.), 107쪽.

다놓코 불을 질너 업쌌다. 그리하여 그날밤에는 업은 쌀을 구하여다가 백시  
 루떡을 찌서 소바우에 올려놓고 밤에 새도록 조왕신에게 손을 부비었다. 그  
 러나 애기의 병은 좀처럼 낫기는 커녕 점점 더하여 갔다.<sup>36)</sup>

①은 이상철이 박치준의 집에서 돼지 판 돈을 잃어버렸는데 돈 훔쳐간 사람  
 이 나타나지 않자 집에서 양밥에 해당되는 증묘(蒸貓)주술을 행하여 도둑을 잡  
 고자 하는 것이다. 위의 예문처럼 고양이는 주술적 동물의 일종으로, 사람을 저  
 주할 수 있다고 여겨, 고양이를 잡아다가 시루 속에 넣어 상여줄로 시루를 감  
 고, 불을 때면서 도둑의 눈이 멀거나 손이 오그라들게 해달라고 주문을 읽다.  
 이렇게 고양이를 썬 죽이면, 도둑도 주문대로 눈이 멀거나 손이 오그라든다는  
 전래의 민간풍속이다.<sup>37)</sup>

②와 ③은 윤서의 아기가 학질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 약을 짓지 못하고, 병  
 을 낫게 하려고 행하는 우리나라 전래의 민간요법과 점치는 풍속이다. ②는 생  
 가재즙이나 돼지머리를 먹이는 민간요법을 통해서,<sup>38)</sup> ③은 점을 쳐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병을 낫게 하려는 행위이다. 이러한 풍속들은 시대 상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고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는 우리의 전래적인  
 고유의 풍속으로, 일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행하는 샤머니즘적  
 인 민간신앙이다. 특히 ②와 ③의 행위는 가난한 농민의 모습을 사실감 있게  
 드러낸다.

다음으로 근대자본주의의 농촌 유입을 보여주는 풍속으로 금광풍속을 살펴  
 보자. 이것은 제1회 연재분에서 대구집이라 불리는 박치준을 설명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보인다.

36) 『사해공론』(1937. 3.), 107-108쪽.

37)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동아출판사, 1992. 10.),  
 57-58쪽 「고양이」 참조. 우리 현대소설에서 증묘 주술을 다룬 작품으로 김문수  
 의 「증묘(蒸貓) 1·2·3」, 『월간문학』 32, 37, 46호; 1971. 6, 1971. 12, 1972. 9)가  
 있다.

38) 돼지는 보통 민속에서는 제의의 희생으로 바쳐지는데, 인간의 치료제로 쓰이기  
 도 한다. “뱀에게 물렸을 때에나 급상한(急傷寒)에는 해년 해월 해일에 짠 참기  
 림[三亥油]을 먹었다. 꽃감을 먹고 체했을 때에는 돼지고기를 먹었고, 성홍열(猩  
 紅熱)에는 돼지똥을 풀어 먹었다. 그리고 산모가 젖이 부족할 때에 족발을 먹이  
 는데, 이렇게 하면 젖이 많이 난다고 한다.”(위의 책, 231-232쪽 「돼지」참조)

나갔다 드러오면 반듯이 금돌을 한줌치적 가꿔다가 탁자우에나 책상우에 다 쌓어두었다. 마루밑이나 부엌간에까지 원갓 금돌이 콕콕 채여 있었다.

살념이고 부에고 그는 일편단심이 단지 금에만 있는 것 같았다. 밥을 먹으면서도 한쪽 손으로는 반짝반짝하는 노란 돌조각에 침을 뱉어 문질르고는 뚫으지도록 드러다 본다. 그는 마치 금을 위하여서만 이 세상에 난 것같이 보이였다. 조그만 가방과 쇠마차 한개만 가지고 나가면 의례히 한달 두달은 어디로 도라다니는지 도라오지 않았다. 소문으로는 경북 어느 지방에 그의 금광이 한군데 있다하기도 하였다.<sup>39)</sup>

이처럼 그는 농사는 모두 머슴인 윤서에게 맡겨놓고 금광을 돌아다니는 일종의 광주(鑛主)에 해당되는 인물이다. 익히 아는 바와 같이 1930년대는 '황금광 시대'라 불릴 정도로 지식인에서 일반 민중에 이르기까지 황금 열기에 휩싸인 시대였다.<sup>40)</sup> 그러나 그는 대구집이라 불리는 것처럼 대구에서 이 농촌으로 들어온 인물이다. 실제로 농촌에 밀어닥친 금광 열기의 풍속도는 제3회의 중반 부분에서 끝부분에 이르기까지 주인공 윤서와 관련되면서 길게 서술된다.

윤서는 다시 금광생각을 해 볼때에 가슴에 불이 붙듯이 원전신이 흥분되었다.

바로 이해의 봄이었다.

곳곳이 금광노름이 유행하자 이 마을에도 그 유행은 미칠듯 계덜쳐왔다.

춘궁에 시달린 마을백성들은 남녀노소없이 툭뿌리를 캐노라고 앞산을 허엿게 오르내렸다.

누런 고꾸라 양복을 입은 낫서른 사람들은 이보다지잡게 원산을 쏘다니면서 금줄을 찾으려고 애를썼다.

아닌게 아니라 이 마을 골작우니는 옛날부터 금쟁이가 떠나지 않을만큼 금맥이 많은 곳이라고 하였다.

새삼스러히 마을 사람들은 개천을 파헤치고 사금을 파기 시작하였다. 날마다 수십명 사나히들은 개천 가운데를 한길 두길씩 팠다. 각기 제남편들을 따라 녀편네들은 물을 푸고 아이들은 보도랑을 쳤다.

끄러오야 논 땅바닥 흙으로 합지나 박아지로서 금을 인다. 맨나중 합지바닥에는 새까만 철분이 남고 철분을 다시 정미롭게 일면 좁쌀같은 혹은 마늘

39) 『사해공론』(1936.10.), 37-38쪽.

40) 류종렬, 「일제 강점기의 '금 모티프' 소설 연구(1) - 김유정 소설을 중심으로」, 『가족사 연대기소설 연구』(국학자료원, 2002. 2.), 257-265쪽. 그리고 전봉관, 「1930년대 금광 풍경과 '황금광시대'의 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제7집(한국현대문학학회, 1999), 79-121쪽 참조.

끝만큼이나 한 금알이 뵤작뵤작 ○○○.

그들은 손가락에다 침을 문쳐 가지고는 금낫을 집어서 접시에다 모아둔다.

가다가 어떤날은 콩알만한 놈도 줍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법 대초씨만큼이나 한놈을 줍기도 하였다.

그러면 먼 이웃마을에까지 소문이 퍼지게 아무개는 개란만큼이나 한 금덩이를 주셨다는 등 아무개는 팔자를 고쳤다든 등 야단이었다. 그러면은 읍내에서는 몇몇 장사치가 나와서 금을 사 모았다.

적어도 ○○○○ 시세보다는 삼사십전 헐케 파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들은 금시세를 옳게 모르며 또 안대도 입사리가 바쁘고 조고만 것으로 일부러 대구나 서울까지 갈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어쨌던 하루에 평균 오륙십전 버리는 되었다. 그러므로 구태여 남의 품파리를 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고 또 불붙는 요행심을 만족시켰다.<sup>41)</sup>

이것은 근대자본주의의 유입에 따른 변화된 농촌의 풍속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농촌에까지 불어닥친 금광 열기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마을 바깥 사람의 금광에 대한 욕망과는 달리 마을 사람들의 사금 채취는 춘궁의 시달림에서 벗어나고자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때 윤서는 “큰 금덩이가 나왔다는 소문이 들릴때마다” 머슴살이하는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밤으로는 큰금덩이를 캐어내는 꿈을 여러번 꾸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대서업을 하는 김가라는 사람이 마을의 개울 전체를 출원 측량하였기에, 마을 사람들이 사금을 채취하는 것이 금지되었다.<sup>42)</sup> 이러한 풍속들이 농민들의 일상 생활상과 깊이 연계되어 생생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작품이 농촌 소설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이 작품이 지닌 농촌 소설로서의 의의를 살펴보자.<sup>43)</sup> 미완의 작품이

41) 『사해공론』(1936. 12.), 95-96쪽.

42) 이후의 내용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윤서와 이상철 사이에 얽힌 사연으로, 윤서가 발견한 금맥을 상철이 알아내어 그의 이름으로 이미 출원을 하였고, 제6회의 중간 부분에서 상철은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한다.

43) 농촌소설과 농민소설을 엄격히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필자는 조동일의 견해를 따라, 농촌소설은 배경이 농촌이라는 뜻이고, 농민소설은 인물이 농민이라는 뜻으로, 두 용어는 강조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여 농촌소설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지식산업사, 1994.1.), 325-326쪽 참조.



므로 구체적으로 그 의의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930년대의 농촌소설 또는 농민소설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계몽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춘원의 「흙」이나 심훈의 「상록수」 같은 계몽적 농촌소설, 둘째, 당대 현실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낸 조선프로에맹(KARF) 작가들과, 이무영, 김유정 등의 사실적 농촌소설이 그것이다.<sup>44)</sup> 둘째의 경우는 작품 경향이 사실적이라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작품이 추구하는 의미가 각기 다르다 「야화」는 사실적 농촌소설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조선프로에맹 작가들의 작품처럼 사회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무영의 작품처럼 숙명적으로 흙에 매달려 사는 우직한 농민들의 비참상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김유정의 작품처럼 해학적인 토속성을 드러내는 농민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는다. 「야화」는 떠돌이 머슴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농촌의 궁핍상과 지주 또는 부재지주의 횡포상을, 당대의 농촌 풍속과 더불어 짙히 그려내고 있다. 특히, 주인공의 유형을 통해 볼 때, 「야화」는 농촌소설의 새로운 인물 유형을 만들어 내고 있는 작품이다. 1930년대 농촌소설에서 주인공이 농민인 경우, 소작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작품은 떠돌이 머슴이라는 점에서 최하층 농민이 겪는 궁핍한 농촌의 생활상을 더욱 짙히 그려내는 것이다.<sup>45)</sup>

44) 조남철, 「30년대 농민소설의 전개 양상」, 이선영 편, 『1930년대 민족 문학의 인식』(한길사, 1992. 9.) 456쪽 참조.

45) 이주홍은 농촌 출신의 작가로, 농촌의 가난한 생활을 직접 경험하였다. 그의 고향은 경상남도 함천의 읍내에서 이십 리 정도 떨어진 영창이라는 농촌의 산밭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 위로는 형이 둘 있었는데, 병으로 죽었다고 한다. 이때 그의 아버지 나이가 서른 여섯 살이었고, 어머니가 스물 여섯 살이었는데, 결혼 후 10년만에 그가 태어난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 탓에 당시로는 만혼이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는 다섯 살에 모친을 여의고, 열두 살 때 부친을 여윈 뒤 삼촌의 그늘 밑에서 고아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어렸을 때 그의 집은 매우 가난했다. 아버지는 들일을 나가고 어머니는 시삼촌 집의 일을 거들어 주며 시집살이를 해야 했다. 14살에 서울로 혼자 떠나 고향을 하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오고, 18살에 일본으로 건너가 토목공사장의 막일, 탄광 체탄작업, 철물점 점원, 과자점 직공, 문방구 공장 등을 전전하면서 주경야독을 한다. 1929년에 귀국하여 서울에서 생활하게 된다.

## IV. 결 론

지금까지 이주홍의 미완의 장편소설 「야화」(1936-1937)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첫째, 「야화」는 『사해공론』에 1936년 10월호부터 1937년 5월호까지 7회 연재되다가, 6월호부터 중단되었다. 향파는 연재분에만 뒷부분을 덧붙여 1938년 풍림사에서 출판하려 하였으나, 발간되지 못한다. 해방 이후에도 다시 출판하려 하다가 인쇄소에서 원고가 분실되었다고 한다. 출판 광고문과 작가의 말을 통해 볼 때, 이 작품은 식민지 농촌의 궁핍한 생활을 떠돌이 머슴이라는 최하층민의 삶을 통해 보여주려는 농촌소설이다. 연재 당시 필 벽의 『대지』에 비견되는 등 문단에 비상한 관심과 적지 않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그리고 이 작품이 창작집으로 출판되지 않았음에도 일제말기나 한국전쟁 이후에도 향파는 「야화」의 작가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둘째, 「야화」의 시공간적 배경은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1930년대의 경상도 농촌인 듯하다. 주인공은 윤서라는 떠돌이 머슴인데, '조선현실의 최하층'에 속하는 계층이며, 머슴살이는 농촌에서 소작인도 될 수 없는 농민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셋째, 윤서를 중심으로 가난의 고통과 머슴살이의 어려움이 작품 속에 짙게 드러나 있다. 그런데 윤서의 안주인에 대한 애정 갈등이 앞부분에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는 동물적 본능과 욕망의 추악성이 인간성을 황폐화시키기까지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아내와 부부관계를 가질 공간조차 없는 윤서에게 원초적 본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듯하고, 이 부분은 장편소설의 앞부분이라는 점과 연재소설로서 독자를 염두에 둔 통속적 구성으로 보여진다.

넷째, 윤서의 생각이나 행동은 머슴살이의 고통 속에서 빈부의 격차에 대한 불만이나 머슴으로서 주인에 대한 약간의 계급의식만을 보이면서 소작이나 집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7회의 마지막 장면에서 당시의 사회주의 이념이나 운동이 실제 농촌의 궁핍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관념적 담론임을 지적하여 그의 역사의식의 편린을 보여준다.

다섯째, 윤서와 대조되는 인물로 박치준과 이상철이 있는데, 이들은 지주 또는 부재지주에 해당되는 인물로서, 당시의 농촌에서 수탈과 착취를 일삼는 부정적 인물이다.

여섯째, 이 작품에는 우리나라 전래의 민간풍속과 근대화본주의의 농촌 유입을 보여주는 금광 풍속 등이 있는데, 이들은 농민의 일상사와 깊이 연계되어 작품에 생동감을 불러일으킨다.

이상을 통해볼 때, 「야화」는 1930년대 후반의 농촌의 궁핍상을 꺾진하게 드러내는 사실적 농촌소설이며, 주인공이 떠돌이 머슴이라는 점에서 우리 농촌소설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하겠다.

주제어: 이주홍, 미완의 장편소설, 야화, 떠돌이 머슴, 사실적 농촌소설

## 참고문헌

- 강남주, 삶의 환희에 대한 문학적 추구 - 작가 이주홍의 편모, 중심과 주변의 시학, 전망, 1997. 6.
- 강인수, 부산소설문학사(70년대와 80년대), 부산문학사, 부산문인협회, 1997. 12.
- 김병걸, 이주홍 문학의 세계, 한국문학전집 16, 삼성당, 1983. ; 학원 한국문학전집 8, 학원 출판사공사, 1991. 11.
- 김정자, 모티브 구조로 본 김정한·이주홍 소설의 문체적 특성, 어문교육론집 8, 부산대 사대 국어교육과, 1984. 12.
- 김중하, 부산시사 제4권 제2장 문화예술 제1절 <문학>,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직할시, 1991. 6.
- \_\_\_\_\_, 문학활동과 현황, 부산의 역사와 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부산대학출판부, 1998. 3.
- 김천해, 두 편의 역사소설 - 이주홍의 <어머니>·<아버지>론, 부산문학 9, 부산문인협회, 1982. 6.
- \_\_\_\_\_, 부조리에의 반역-이주홍의 <수염난 동화>론, 부산문예 20, 부산문인협

- 회, 1986. 12.
- \_\_\_\_\_, 현실인식의 문학, 월간문학, 1987. 7. ; 현실인식의 문학, 전망, 1997.
- 남송우, 이주홍 소설에 나타난 일상성과 역사성 속의 인물, 문학 지평, 1996. 가을호. ; 생명과 정신의 시학, 전망, 1996. 12.
- 류종렬, 위식된 삶의 풍자-이주홍의 소설세계, 부산문화 13, 부산문화회, 1987. 3.; 갈숲 제 25량, 태화출판사, 1987. 6.
- \_\_\_\_\_, 이주홍의 역사소설 연구-〈어머니〉를 중심으로-, 외대논총 18집 1호, 부산외국어대학교, 1998. 2.
- \_\_\_\_\_, 이주홍의 〈아버지〉 연구, 비교문화연구 10집,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9. 2.
- \_\_\_\_\_, 이주홍 소설 연구의 현황과 방향, 우암어문논집 10호, 우암어문학회, 2000. 2.
- \_\_\_\_\_, 이주홍 초기소설의 작품세계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15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1. 12.
- \_\_\_\_\_, 이주홍의 소설집 서지 연구, 외대논총 26집, 부산외국어대학교, 2003. 2.
- 박태일, 이주홍의 초기아동문학과 신소년, 현대문학이론 연구 제18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2. 12.
- 성병오, 부산소설사 (1930-1960년대), 부산문학사, 부산문인협회, 1997. 12.
- 송명희, 현대 문학사의 산 증인, 향파 이주홍, 부산문화 4호. 1985. 5-6월호, 부산문화회, 1985. 6.
- \_\_\_\_\_, 이주홍의 역사소설과 역사적 상상력, 문학도시 2, 1995년. 가을호, 전망, 1995. 9.
- 신동한, 향파 이주홍론, 재부작가론·작품집, 한국문인협회 부산지부, 1974. 12.
- \_\_\_\_\_, 이주홍론- 세련된 현실 달관의 세계, 신화, 범우소설문고 22, 범우사, 1977. 5.
- \_\_\_\_\_, 김정환·이봉구·이주홍·최인욱과 그 문학, 신한국문학전집 43, 어문각, 1977. 7.
- \_\_\_\_\_, 이주홍의 문학 - 구도의 길, 한국현대문학전집 15, 삼성출판사, 1978. 7. 초판, 1981. 9. 중판. 이주홍 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강남주), 이주홍 문

- 학 연구 제1·2권, 대산, 2000. 11.
- 이주홍 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강남주), 이주홍 아동문학상 수상 작품집, 대산, 2000. 11.
- 이주홍 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강남주), 이주홍의 문학과 인생, 세한, 2001. 5.
- 이주홍 문학재단(강남주), 2002 이주홍 문학제 기념작품집, 아침, 2002. 12.
- 정 신, 생애 그 자체로서의 문학, 우리시대의 한국문학 2, 계몽사. 1986. 11.
- 조갑상, 이주홍 소설에 묘사된 부산과 그 의미, 한국 소설에 나타난 부산의 의미,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9. 9.
- 천이두, 양식과 관조, 월간문학, 1972. 3. ; 한국소설의 흐름, 국학자료원, 1998. 11.

<Abstract>

## A Study of Chow-hong, Lee's Leaving Off Half Finished Novel, Folk Tale(야화)

Rhyu, Chong-Ryeo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Lee's half finished novel. Indeed, it was a discontinued serial publication which was appearing seven times serially in the [Sahae Kongron 사해공론] from the edition of October, 1936 to May edition of 1937.

Author attempted to publish it by adding more to the serial at Poongrim Sa in 1938 in vain. This novel vividly and realistically depicts the suffering and painful daily life as a farmhand. Since far the author has been well known as the author of the Folk Tale even after Korean War. Furthermore this fiction brings out vitality and a sense of reality through people's daily lives. Thus his Folk Tale(야화) is easily classified as realistic rural novel revealing the paucity and scarcity in the farm life in the latter of 1930s and evokes a new form of rural fiction in terms of the protagonist is drifting from place to place as a farmhand.